동구,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위한 지속 행보

오윤아 등 홍보대사 잇따라 위촉
릴레이 기부로 우호도시 강화도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 속에 타 자치구와는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속 행보에 나섰다.

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지정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을 대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는 서양화가 정성준 작가, 뉴진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 걸그룹 드림노트, 세무사 이장원, 트로트 가수 김다현 등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오윤아가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E.T 야구단을 방문했다. 오씨는 야구단원, 부모님과 만남을 갖고 공감 토크에도 참여했다.

그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지를 나눴다.

오윤아는 "동구의 고향사랑기금사업이 단순히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과 같은 형태의 특별한 야구단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 향후 야구단 간의 교류전이 열린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구는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인 독려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임택 동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한 이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임택 청장은 지난 13일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어 우호 도시인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기부 인증과 함께 다음 참여자로 서흥원 양구군수를 지목했다.

동구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동구와 양구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관광 및 교류 등 지역의 공동 과제를 함께 발굴, 상생 협력키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도심 속 스마트팜' 개장
북구, 도시재생 사업 일환

광주 북구가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도심지 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에 친환경 스마트 농법 시설을 구축, 도시 자원을 혁신적으로 재생한 사업으로 북구새마을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우치동 중문로 59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이번 도심 속 스마트팜은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해 물의 순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기술(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이 접목된 형태로 설계됐다.

북구는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비롯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애쓴 북구새마을회 등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이번 사업이 북구 마을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돼 지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팜 개장식은 2일 오전 10시부터 우치동 북구새마을회 주차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 새마을회 장단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윤준명 기자

'年 16만명 이용' 문전성시
남구 효천어울림도서관

광주 남구 효천어울림도서관이 1년 만에 연간 이용자 누적 수 16만명을 넘어서며 지역민들의 문화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개관 1주년을 맞은 효천어울림도서관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에만 평균 6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찾고 있다.

효천어울림도서관은 효천지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번째 구립 도서관으로 문을 연 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효천어울림도서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방문 주민은 16만 12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만 2269명이 도서관을 이용했고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10만 8957명이 다녀갔다.

1일 이용자 현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방문객은 평균 476명 수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균 613명에 이른다.

이용객 중 8만7469명은 자료실에서 책을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고, 6만7285명은 자료실에 비치된 책을 빌리고자 도서관을 찾았다.

또 3932명은 자녀와 함께 우리동네 생태숲 탐방 등 생태환경 특화 강좌와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고, 2540명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효천어울림도서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방을 마련했고, 영유아 동반 부모를 위해 수유실과 기저귀 교체 공간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박찬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달 31일 내년 마을사업을 위한 의제를 정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마을자치 위한 주민총회 본격 추진

9월 중 17개동서 축제형 총회
주민자치위서 주민자치회 전환

광주 서구가 지난달 31일 동천동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17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내년에 추진할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학교(학생)총회, 아파트총회, 마을의제학교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 상정할 마을의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이웃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사업, 동별 마을 BI(Brand Identity) 반영 사업 등이 제안됐다.

서구는 지난달 31일 동천동, 양3동, 농성1동, 광천동을 시작으로 9월5일, 6일, 7일, 21일, 24일, 27일, 28일에 17개 동의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풍암동은 올해 상반기에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주민총회는 마을 BI를 담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축제형으로 추진된다. 총회는 동별 BI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보고, 내년도 마을의제사업 주민 투표, 다채로운 체험부스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 투표는 온·오프라인 사전투표와 총회 당일 현장 투표로 병행 진행하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의제는 주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의 변화는 주민의 참여로 시작한다"며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마을의제 사업이 온전히 일상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18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민자치 활동 자료집(영상·책자)을 제작해 활동사항을 알리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광산구, 2024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

2일부터 6일까지 구청 로비 등서
유공자 시상식, 영화 상영 등

광주 광산구가 2024년 양성평등 주간(9월1~7일)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 주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산구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2~6일까지 5일간 구청 로비, 광산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행사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킨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양성평등 발판 퀴즈, 영화 상영, 황룡강생태길30 걷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평등한 문화를 누구나 체감하고 성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자동차 검사·과태료 문자 안내
서구, 5개 자치구 최초 시행

광주 서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9월부터 자동차 검사와 과태료 납부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달한다.

서구는 기존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던 자동차 검사 사전·경과,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안내를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우편물은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 혜택 기회를 놓치거나 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 절차로 쉽게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어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검사 미이행, 과태료 처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법인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고지방법인 등기우편과 병행 실시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 미수검률을 최소화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